

피임정제 肝癌 관련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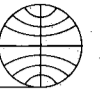
肝細胞癌腫으로死亡例 보고 過多 복용 따른 發病 위험 높아

우 희귀한 질병으로, 영국왕립암연구재단의 연구에 의해 장기간의 피임정제 복용과 간암 발생의 밀접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병한 환자는 극소수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영

국 심장재단의 지원에 의한 질병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혈액내의 고밀도리포단백질(HDL)콜레스테롤의 수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冠狀動脈 심장질환의 위험도에

영국 심장재단의 지원에 의한 질병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혈액내의 고밀도리포단백질(HDL)콜레스테롤의 수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冠狀動脈 심장질환의 위험도에

海外 醫學情報



英國왕립癌研究재단 研究 발표

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20~49세 연령범위의 여성중 연령평균 19명이 피임약정제와 특수하게 관련된 간암의 형태인 肝細胞癌腫으로 인해 사망했다. 암연구재단은 이중 6~12명의 환자가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영 범위의 여성이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수치의 0.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개도국에 있어서 피임약정제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문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DL 콜레스테롤水準 心臟疾患 관련성에 異議

全体 콜레스테롤水準으로 파악해야

측해 주는 주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HDL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의 관련성에 대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혈액내 전체 콜레스테

롤의 특수한 일부인 HDL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보호기능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假說은 십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즉 HDL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고

HDL의 수준이 낮으면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노르웨이의 트롬소(Tromso) 및 美國 프래밍햄(Framingham)에서의 연구에 의해 곧바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그동안 HDL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指標로서 거의 맹신적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런던에 소재한 로열프리(Royal Free) 병원 의과대학에서 그동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지역 24개 도시에서 약 8천명의 中年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 이론이 영국내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로 규명된 것이다.

더우기 조사대상 인원중 4년동안 심장발작을 일으킨 2백2명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HDL 콜레스테롤이 아닌 혈액내의 전체적인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훨씬 확실하고 뛰어난 지표가 되며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콜레스테롤을 가진 사람은 심장발작의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이상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이퍼교수는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결과가 나타났으며 종래의 초기적이고 국부적인 연구에 의해 HDL 콜레스테롤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장질환과 HDL 콜레스테롤의 관련성에 대한 각국에서의 실험적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心臟 국소貧血症 많아

미국의 경우 45세 이상의 남녀 20명중 1명꼴로 심장병을 앓고 있으나 그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연간 10만명이상이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 전혀 모른채 『소리없는』 엄습한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다.

앤드루 쉘윈박사에 따르면 심장국소빈혈이 너무 오래 가거나 심장의 중요부위에 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소빈혈환자들은 약물투여에서 수술에 이르는 여

보통이다. 이런 『소리없는 국소빈혈』은 대체로 45~65세 남성들에게 많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전에

느끼지 않는지 정확히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아마 통증을 느끼지 않는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한계선이 비교적 높거나 통증에 대한 면역작용을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당뇨병환자 역시 통증에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없는 국소빈혈을 모르고 지내기 쉽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인사

美國人 4백만명 추정, 45~65세 男性서 多發

심장병은 미국인의 第一死因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장마비에 의한 불의의 습격을 받는 미국인은 연간 1백5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30%가 사망한다. 심장병중에서도 특정한 심장부위의 혈액이 잠정적으로 중지되는 국소빈혈이 가장 흔하면서도 잠행성의 것이어서 약 4백만명의 미국인이 이 병에 걸려 있으나 절반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포스트誌는 전한다.

보스턴의 브리검 앤드 위민즈병원 심장연구소장

러가지 요법을 사용하게 된다. 수술은 혈관의 막힌 곳을 뚫거나 동맥을 넓히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소빈혈증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국소빈혈에는 통상 안지나가 수반된다. 이증세는 가슴이 뜨겁거나 심한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을 의심하게 되지만 환자의 절반가량은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않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스테스트에는 잡힐수 있다는 것이 최신연구보고이다.

만약 자신이 심장국소빈혈증환자로서 심박능력이 저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정신적 스트레스나 운동 등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경우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심장병학자들은 다 같은 국소빈혈환자들로서 어떤 사람은 증상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통증을

람, 흡연자,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또는 가족중 심장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35세가 넘으면 운동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저지방음식, 운동, 금연 등으로 섭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의들은 충고한다.

『국소빈혈증』이 45~65세 男性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 이들 연령층에 대한 豫防의 조치가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장기간 經口用 피임약錠劑를 복용해 온 사람에게 있어서 肝臟癌의 발병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보고서가 영국 왕립암연구재단에 의해 제출됐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포먼(David Forman) 박사에 따르면 8년동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經口用 피임제를 사용해 온 사람에게 있어서 肝臟 發病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피임약의 복용에 따른 잇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서 가령 피임약의 卵藥毒에 방호효과에 의해 확실히 많은 인명을 보호할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肝癌은 실질적으로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매

한국에도 이제 맥주효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맥주효모제품

(제조허가번호: 보사부 제27호)
(품목허가번호: 보사부 제1호)

한국바이오에너지
Korea Bio-Energy Co., Ltd.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4 3층

맥주효모는

- 간장피해예방인자
 - 혈당조절인자(GTF)
 - 발암억제인자
 - 위장강화인자
 - 고혈압조절인자
- 를 갖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마®는

맥주효모의 고유한 쓴맛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錠劑)로 만든 영양등식품입니다.

(주) 한국바이오에너지는

맥주효모제품 리포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금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 본사: 서울: 547-7056, 548-0264, 부산: 23-5496, 대구: 553-0990, 대전: 252-8070,

전주: 74-6372

권장소비자가격: ₩ 18,000